

국난 극복 앞장 불교 명예 드높인 고승들



14대 선조 - 목릉<2>
선조 1552-1608(57세)
재위 1567.7(16세)-1608.2(57세)

선조 대는 조선조는 물론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 최대 난세였다. 난세를 관통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민초들은 물론 옥좌에 앉은 임금도 심신이 괴롭다. 그러나 난세에는, 한편으로 영웅이 만들어진다. 역사의 발전 과정은 '도전과 응전'이란 토인비의 기설은 정확하다. 임진왜란, 조일전쟁, 7년 전쟁 등으로 불리는 난세에 출현 영웅이 탄생했다. 성웅 이순신, 홍의장군 객주유, 서애 유성룡, 울곡 이이, 불멸의 시인 송강정철 등이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다간 영웅들이다.



서산 대사

서산 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국난을 극복하고 불교의 위상을 높인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휴정은 선조의 부름을 받고 전국에 격문을 보내어 의승군의 결기를 호소했다. 자신은 순안 법흥사에서 문도 1500명으로 승군을 조직했으며, 평양탈환작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 선조가 팔도십육중도총섭에 책봉하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제자인 유정에게 물려주고 묘향산으로 돌아갔다. 선조가 서울로 돌아오자 승군을 이끌고 나가 호위한 후 승군장의 직에서 물러나 다시 묘향산으로 돌아갔다. 이때 선조는 정2품 당상관의 직위를 내렸다.



서명 대사

서명 대사(西溟大師) 유정(惟政), 뛰어난 웅변과 외교력으로 나라를 구하다

유정은 오대산 영감사에 머무는 때, 정여립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모함을 받아 강릉부의 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강릉의 유생들이 무죄를 항소하여 석방되었다. 이듬해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수도하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 때 스승 휴정의 격문을 받고 의승병을 모아 순안으로 가서 휴정과 합류했다. 그곳에서 의승대장이 되어 의승병 2000명을 이끌고 평양성과 종화 사이의 길을 차단하여 평양성 탈환의 전초 역할을 담당했다. 1593년 1월 평양성 탈환의 혈전에



울산성 전투도

서산 대사 임진왜란 때 승군 결기·전투 참여 등 맹활약 일본 사신으로 파견된 서명 대사는 뛰어난 외교력 발휘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그 해 3월 서울 근교의 삼각산 노원평 및 우관동 전투에서도 크게 전공을 세웠다. 선조는 그의 전공을 포상하여 선교양종판사를 제수했다. 그 뒤 전투 네 차례에 걸쳐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 가토와 회담을 가졌다. 제1차 회담은 1594년 4월 13~16일 울산 서생포 일본 본진에서 열렸다. 일본은 '강화5조약'이라 하여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그 내용은 ①전자와 결혼할 것 ②조선 4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③전과 같이 교린할 것 ④왕자 1명을 일본에 보내어 영주하게 할 것 ⑤조선의 대신·대관을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등이었다. 유정은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설파하여 모두 물리쳤다.

에 대비하는 역사적 안목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해안을 보여주고 있다. 즉 목민관을 가려 뽑아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을 소탕할 것, 일시적인 강화로 국가백년의 대계를 망각하지 말고 국제회복에 반반의 방어책을 세울 것 등을 주장했다. 유정은 국방에 깊은 관심을 보여 산성수축을 착안했으며, 산성개축에 힘을 기울였다. 그가 수축한 산성은 팔공산성·금오산성·용기산성·악전산성·이승산성·부산성 및 남한산성 등이다. 선조는 유정에게 환속하여 장수가 되길 간곡히 청하기도 했다. 군기제조에도 힘을 기울여 해안사 부근의 야로에서 활총 등의 무기를 만들었고, 투항한 왜군 조총병을 비변사에 인도하여 화약제조법과 조총사용법을 가르치도록 했다. 1594년 의령에 주둔했을 때는 군량을 모으기 위하여 각 사찰의 전답에 봄보리를 심도록 했고, 산성 주위를 개간하여 정유재란이 끝날 때까지 군량미 4000여 석을 비축했다. 선조는 그의 공로를 크게 인정하여 가선대부지중추부사의 벼슬을 내렸다. 1604년 2월 선조의 부름을 받고 조정으로 가서 일본의 강화를 위한 사신으로 임명되었다. 1604년 8월 일본으로 가서 8개월 동안 노력하여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두었고, 전란 때 잡혀간 3000여 명의 동

포를 데리고 1605년 4월에 귀국했다. 그 해 10월 묘향산으로 들어가 비로소 휴정의 영전에 참배했다.

선수 대사(善修大師) 부휴(浮休), 휴정의 격의선을 계승한 덕유산 호랑이

부휴는 덕유산 초암에 은신하고 있던 중 왜적 수십명을 만났다. 뒷집을 지고 선 그의 앞에서 왜적이 칼날을 휘두르는 자세를 취하였으나, 그가 태연부동하게 있었으므로 왜적들이 크게 놀라 절한 뒤 물러갔다. 이후 가야산 해인사에 머무는 때 명나라 장수 이종성이 찾아와서 법문을 듣고 감동했다. 얼마 뒤 무주 구천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하루는 <원각경>을 외우고 있을 때 큰 뱀이 나타나서 계단 아래에 누워 있었다. 경을 다 외운 다음 뱀에게 가서 한 발로 그 꼬리를 밟자 뱀이 머리를 들고 물러났다. 그날 밤 꿈에 한 노인이 절하고는 "화상의 설법의 힘을 입어 이제 고통의 몸을 여의었습니"라고 했다. 광해군 때는 두류산에 있었는데 어떤 미친 승려가 무고하여 투옥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났다. 이를 계기로 광해군이 내전으로 초빙, 설법을 청해 들었다. 스님의 설법을 들은 광해군은 크게 기뻐하며 가사와 장삼, 염주 등을 하사했다. 또 봉인사에 재를 설하여 그를 증명으로 삼았다.

기허당 영규(騎虛堂 靈圭), 의승군의 선봉에서 순국하다

영규는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순국한 승군장이다. 계룡산 감사에 들어가 출가하고, 뒤에 휴정의 문하에서 법을 깨우쳐 그의 제자가 되었다. 충남 공주 청원암에 있으면서 무에 익히기를 즐겼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분을 이기지 못하여 3일 동안 불공했다. 이후 변연이 일어나 의승을 모집하여 스스로 승장이 되었다. 의승 수백 명을 규합하여 관군과 함께 청주성의 왜적을 쳤다. 관군은 패하여 달아났으나 그가 이끄는 승병은 대창과 낫으로 변연이 따라오도록 향하는 왜군을 공격하고자 할 때, 그는 관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하여 이를 늦추자고 했다. 그러나 변연이 듣지 않자 그는 변연을 혼자서 죽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와 함께 금산전투에 참가했다. 그리하여 변연이 이끄는 의병과 영규가 거느린 승군은 1592년 8월 18일 금산전투에서 최후의 한사람까지 싸워 왜군의 호남침공을 저지했다. 서울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 갔던 선조는 청주성 승전 소식을 듣고, 영규에게 당상의 벼슬과 옷을 하사했다. 그러나 영규는 임금이 내린 포상물이 도착하기 전에 금산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기허당은 임진왜란을 맞아 처음으로 의승을 일으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승군이 결기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글이유상(소설가 asdfang@naver.com) 사진=최진연(사진작가)

2008학년도 대원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서울,부산)

불교대학 최초 명상학과 개설 / 대학원 과정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개설 / 법사과정(3년제) 신설
2008학년도 입학생 전원에게 50% 장학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집과정

- 대학 과정(서울·부산)
 - 입문과정(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 불교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명상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대학원 과정(서울·부산)
 - 불교학과(서울·부산) : 야간 00명 [주 2회 출석]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법사 과정(서울·부산)
 - 법사과정(서울·부산) : 주·야간 00명 [3년제, 주 2회 출석]

강의시간 ●주간-오후 2시 ~ 4시 40분까지 ●야간-오후 7시 ~ 9시 40분까지

지원자격

- 대학 과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일반 불자 및 직장인 환영)
- 대학원 과정 : 불교학과 - 불교 교양 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상담학과 졸업자, 상담심리과정 이수자
- 법사 과정 : 불교전법활동에 원하는 자. 포교원, 사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7년 12월 1일 ~ 2008년 3월 3일
- 입문-대학 대학원 전형 : 서류 전형

입학식일시

- 부산대원불교대학 : 2월 23일(토) 오후 2시 대원불교대학 2층 큰법당
- 서울대원불교대학 : 2월 24일(일) 오후 2시 대보빌딩 3층 대보사 큰법당

특 전

- 법사과정 졸업 후 법사고시에 응시, 합격자에 한하여 법사수료증을 수여
- 불교전문심리상담사 1.2급 자격증부여
- 명상전문지도사 1.2급 자격증부여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시 카드 결제 및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Daewon never sleeps ● (재)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대학·대학원

2008년 봄 대원정사 문화교양교실

2008년도를 맞이하여 행복도량 대원정사에서는 불자 및 일반인을 위하여 각 분야의 최고 강사진으로 구성된 고품격 문화교양교로 회원님 한분 한분께 다가가는 최고의 서비스로 새로운 문화교양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또한 행복도량 대원정사는 회원님들의 애정과 정성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드리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원정사 문화교양교실 안내

▶개강 : 3월 초 ▶종강 : 5월 말 ▶월회비 : 3만원 ▶장소 : 대원정사 불교문화회관1층 ▶문의 : (02)754-1613

※ 대원정사 문화교양교실원회비 3만원이 되시면 모든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으며 초하루기도 시 무료로 축원에 드립니다.

월	요일	오전	오후	저녁
월	요일	불교경전강의(아함경(대기까야) · 시간 : 10시 30분	사찰요리(선재스님) : 오후 2시 30분 의인강좌(월연 강) : 3시 30분	
화	요일		커피강좌(관정하교수) 오후2시30분 다도(최미영강사) : 2시 꽃꽂이(강경희강사) : 3시 30분	
수	요일	문화탐사 · 박물관기행 (최광자: 매일 첫째주 · 불교문화유산(지정스님) : 매일 둘째주	떡, 궁중요리,푸드스타일, 어린이 음식 강좌 · 오후 2시 · 강사 : 이희경강사	
목	요일	차명성(지정스님):오전10시 30분 오가(김경희강사):11시 30분	노래연습(함정) : 오후 1시 생활명상/차명성 : 오후 2시30분/지정스님	생활명상/차명성(지정스님) 오후 7시 30분
금	요일		아로마테라피(박영자 강사) : 오후 2시 경락/차(김박지혜강사) : 오후 3시 30분	
토	요일		생활명상 집중수련 : 오후 2시 부터 ·매월 3주 (월 1회)	

2008년 봄 월빙 일요일특강

▶장소 : 후암동 대원정사 1층 큰법당 ▶시간 : 일요일 오전 11시

순서	일 자	강좌 내용	강사
1차	3월 9일	사찰요리	선재스님(선재사찰요리 연구원장)
2차	3월 16일	불교음식에 갖든 정신	김영철교수(중앙승가대 교수)
3차	3월 23일	우리문화의 열과 정신(문화탐사)	이세용(우리문화 해설가)
4차	3월 30일	자비명상	묘운스님(행복명상원장)
5차	4월 20일	총지의 효능과 맛있게 마시는 법	정영숙 교수(부산여대교수)
6차	4월 27일	생명과 환경 윤리	이재돈 신부(가톨릭대학 교수)
7차	5월 4일	우리 전통음식의 맛과 비결	항적원사장(전통팽이치 연구원장)

행복도량 ● 대원정사

서울특별시 용인구 후암동 358-17
전화 (02)754-1613 / 754-9171
팩스 (02)771-6796
www.idaewon.or.kr